한미의장 "확장된 억제력으로 '北비핵화' 지원"

"北 위협 수위 엄중 상황 우려…국제 협력·외교적 대화"

펠로시 "안보·경제·거버넌스 협력 논의…한국 의견 경청"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 두번째)이 본관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충무공 이순신 석상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돼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그래서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측 순방단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이 지원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다.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의회의 관계도 강화하겠다"며 "공동의 가치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다. 국가 정상만이 아니라 의회 간 협력으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담은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1시 9분까지 1시간 10여 분간 진행된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오찬을 하며 추가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前정권 장관' 언급…이준석 "나와서는 안될 발언"

'尹, 與대변인 공개…' 칼럼 공유 "눈 의심케 하는 증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자신과 가까운 박민영 청년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인사 논란 관련 발언을 공개 비판,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칼럼에 대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 대변인이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윤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나와서는 안될 발언이었다"며 직격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게재한 '尹 대통령, 참을 인(忍)자 세 번만 쓰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령·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와 관련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권이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탓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박 대변인의 지난달 5일자 논평이 내홍의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돼 주변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실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칼럼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박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황'은 최근 당 내홍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이례적일뿐더러, 시기적으로도 박 대변인이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논의(7월 7일) 직전에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으며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배후조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 대표는 이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저는 대표 취임 이후 대변인단이 쓰는 어떤 논평에도 이걸 쓰라는 이야기, 저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제 그 철학은 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고 깨지지 않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고, 대선 이후에도 당당하게 경쟁 선발로 우리 여당의 대변인 자리를 맡은 사람"이라면서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방송에서 상대와 맞붙었던 선무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 경호하고 다니던 호성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발언에 대해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더 심각한 것은 영상에 잡혔지만 강인선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띠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서 "강 대변인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박민영 대변인은 할 일 이상의 용기와 책임의식을 갖고 했다"며 대통령실을 싸잡아 저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뭔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홍근 "대통령 관저의혹, 국정조사 등 검토"

"펠로시 방한에도 대통령은 술자리…좌충우돌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의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혹은 묵묵부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위 개최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된다.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있게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휴가 중이라 안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다시 만남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기고 있다.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이라며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다툼에 매몰돼 책무를 잊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위기가 몰려올 텐데 당·정·대 어디서도 위기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민주, '만 5세 입학' 맹공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졸속 발표된 정책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